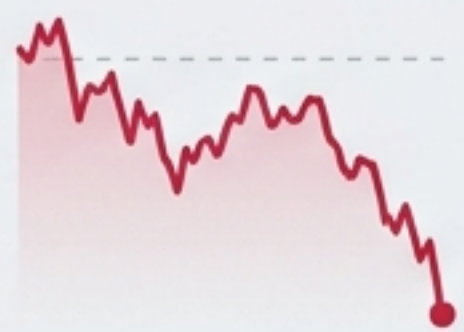


2026년 5월 20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

고금리 공포와 자본 이탈이 촉발한 시장 변동성 점검

글로벌 리스크 오프(Risk-Off) 장세 속, KOSPI는 7,200선에서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미국 국채 금리 급등과 3조 원 규모의 외국인 매도 폭탄이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가운데, 철저한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.



KOSPI 7,208.95 (-0.86%)
KOSDAQ 1,056.07 (-2.61%)

7,200선 턱걸이



미국채 10년물
5.2% 돌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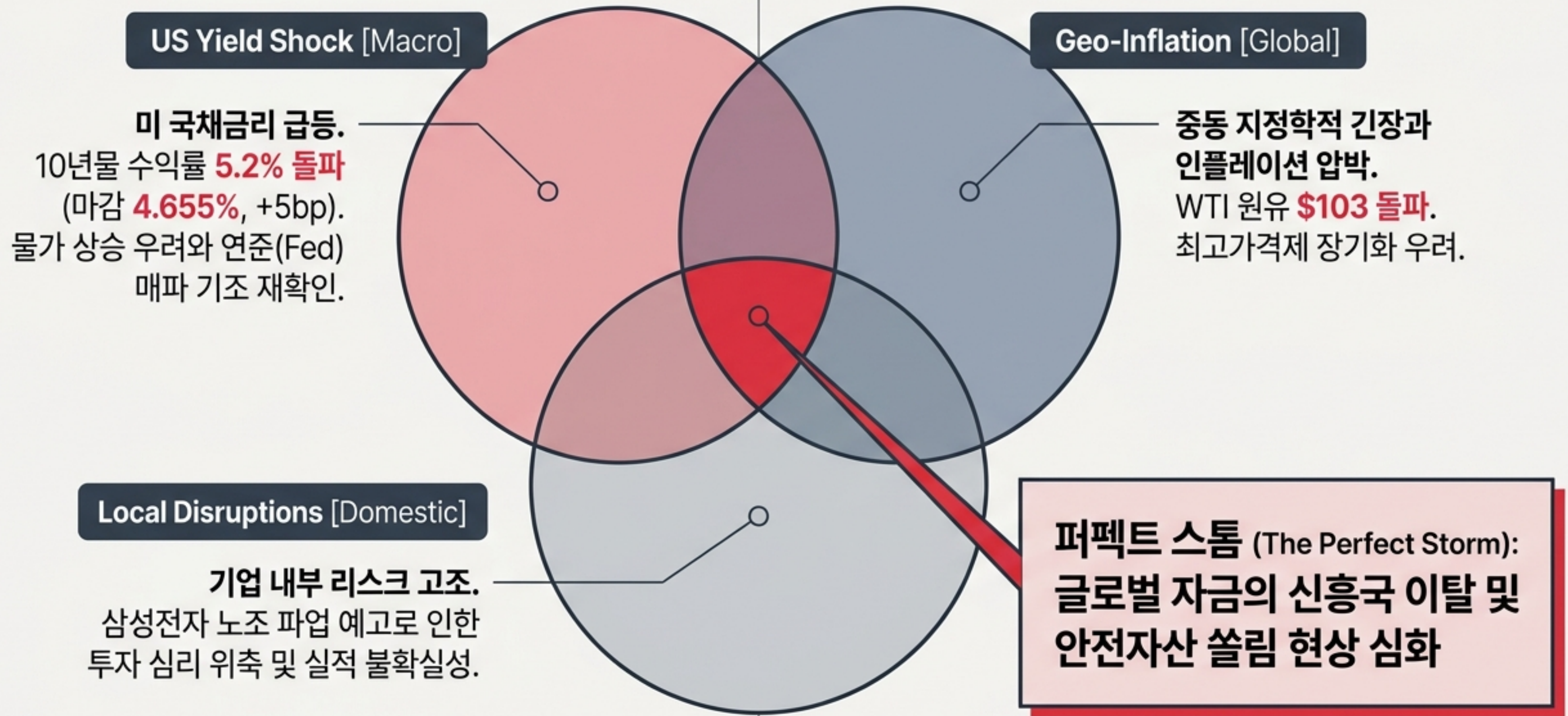
18년 만 최고치 갱신



외국인 순매도
573.3만 주

약 3조 원 자본 이탈

시장을 뒤흔든 3대 핵심 변수



중력 효과: 엇갈린 미 증시와 금리의 역학

Core Insight: 국채 금리 5.2% 터치는 성장주에 강력한 '중력'으로 작용했으나, 전통 가치주에는 자산 방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

[Yield Line] 미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
(마감 4.655% / 장중 5.2% 터치)

[Yield Line] 미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
(마감 4.655% / 장중 5.2% 터치)








[Buoyancy Arrow - DOW]
DOW JONES 50,000.00 (+2.10%).
은행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제약주 등
방어적 가치주의 선방으로 5만 포인트 돌파.



[Gravity Arrow - NASDAQ]
NASDAQ 26,090.73
(+0.00% / 장중 -0.8% 하락).
고금리에 취약한 기술주 밸류에이션
취약한 기술주 밸류에이션 부담 가중.
반도체 지수는 턱걸이 강보합 유지.

글로벌 증시 반응 매트릭스

	 중국 /  호주 (방어적 상승)	 유럽 (평화 헷지)	 한국 /  일본 (직격탄)
지수	상하이종합 +0.45%, ASX 200 +0.52%	STOXX 50 +0.62%, DAX/FTSE +0.07%	KOSPI -0.86%, 닛케이 225 강보합(+0.07%) 및 장중 하락
핵심 동인	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의 '계산된 침묵' 전략. 호주는 자원주 중심의 상승.	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및 방산주 강세 주도.	미 금리 발작 연동, 삼성 노조 파업 변수(KR), 엔화 약세 부담(JP).
センチメント	원자재 인플레이션 헷지 (Risk-Mitigated).	관망 속 선별적 강세 (Selective Risk-On).	투자심리 급격 위축 및 엑소더스 (Risk-Off).

안전자산으로의 도피: FICC 대시보드



WTI 원유 (\$103.76 | +\$2.62)

인플레이션 압력 가중. OPEC 감산 연장 기대 및 미-이란 협상 낙관론 속 공급 우려.




금 (\$4,985 | +\$1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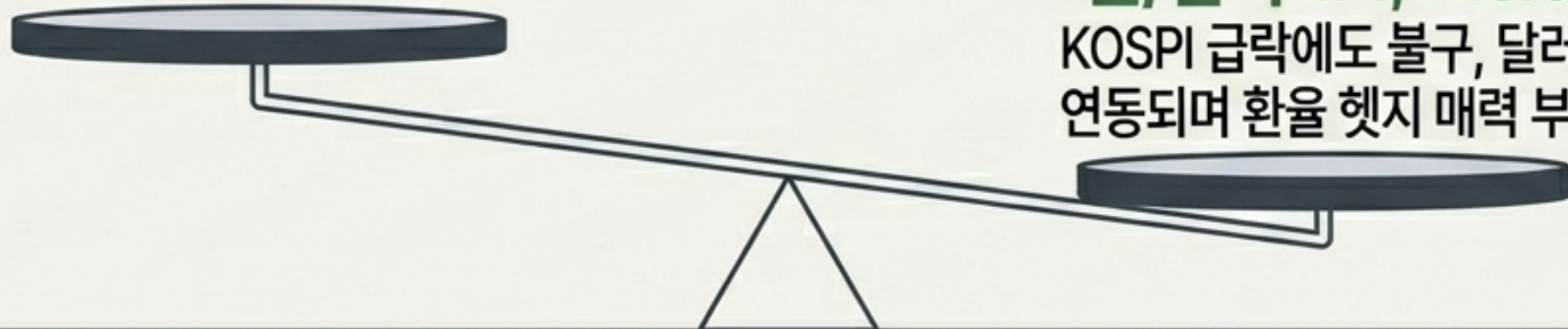
안전자산 선호 지속. 국내 금 현물은 95.8만 원 선에서 투자 열풍 지속.




비트코인 (\$103k | +\$1,240)

대체 자산 유입. 변동성 장세 속 ETF 순유입 지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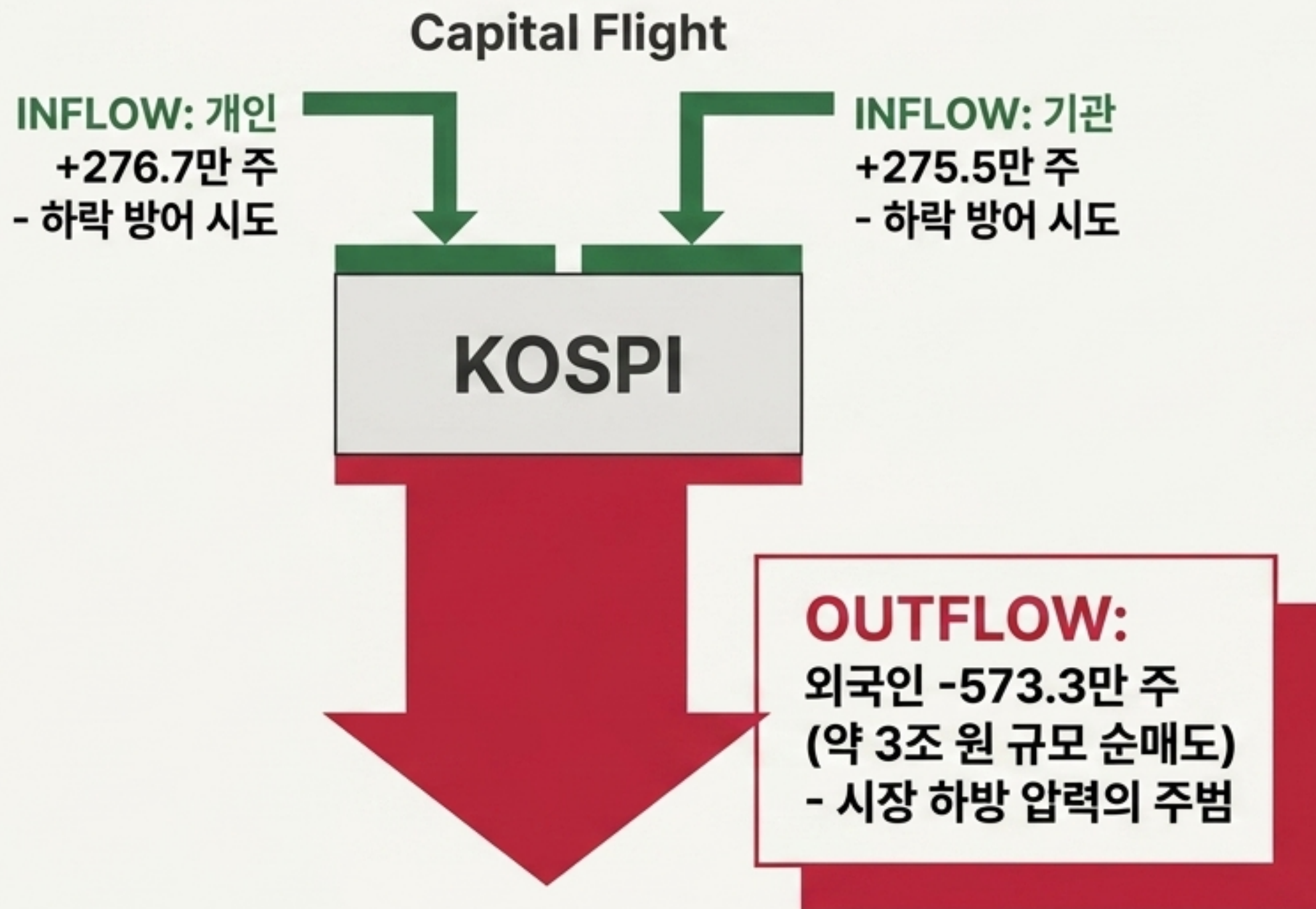
달러 인덱스 약세: 158.9730 (-0.32). 
유로화 강세(EUR/USD 1.1790)에 따른 하방 압력.



원화의 이례적 강세:
원/달러 ₩1,445.00 (-5.30). 
KOSPI 급락에도 불구하고, 달러 약세에 연동되며 환율 헷지 매력 부각.

국내 증시 충격: 7,200선 턱걸이와 자본 이탈

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폭탄이 촉발한 '롤러코스피' 장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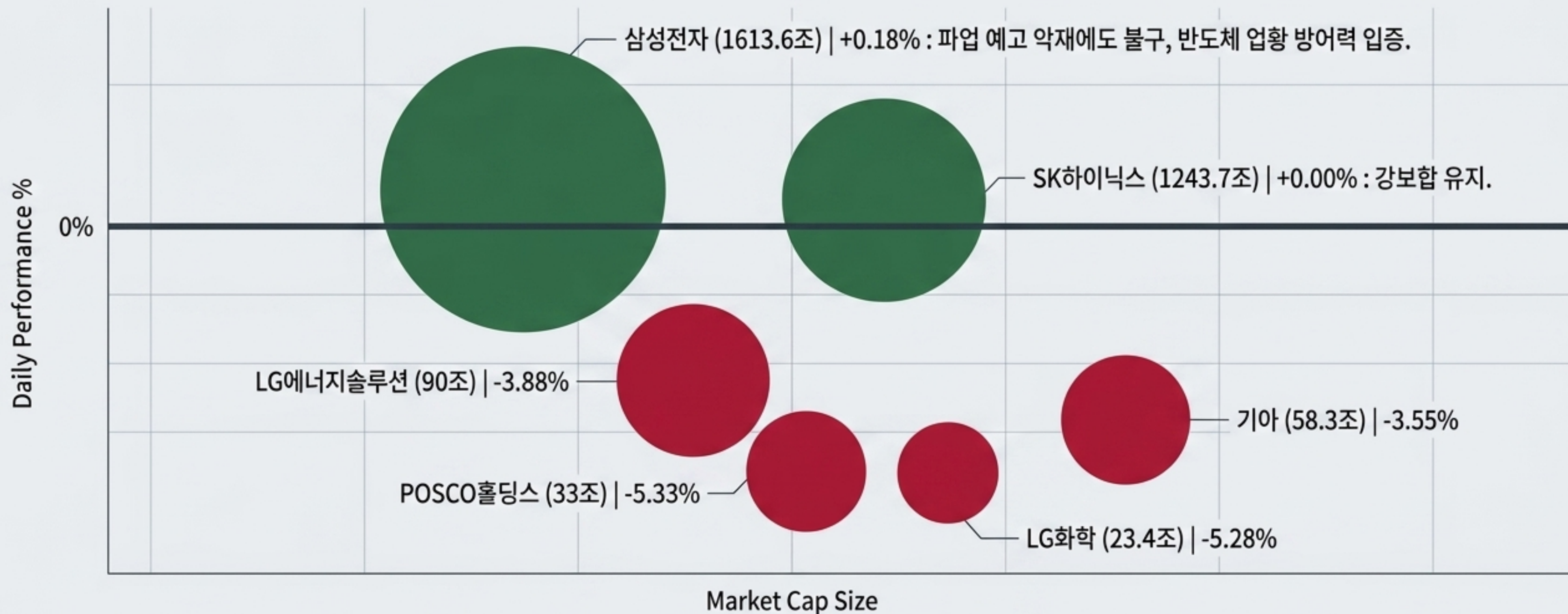
KOSPI 7,208.95 (-0.86%):

7,100선까지 등락을 거듭하며
장중 7,000선 붕괴 위기 직면.

KOSDAQ 1,056.07 (-2.61%):

신규 상장주(마키나락스 증거금 14조)
쏟림 현상 속 기존 종목들의 동반 급락.

블루칩 전쟁터: 코스피 시총 상위 10종목 퍼포먼스



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홀로 방어하는 가운데, 2차전지 및 자동차 대표주들이 3~5%대 급락하며 시장 하방을 주도.

섹터별 출혈: 고금리가 짓누른 내수 및 금융

국채 금리 급등과 현금 고갈 우려가 이자 부담이 높은 금융 및 인프라 섹터를 강타했습니다.

금융업: 1D -5.50% (1W -9.69%)
- 채권 손실 및 조달비용 급등 우려

서비스업:
1D -5.01%
(1W -6.1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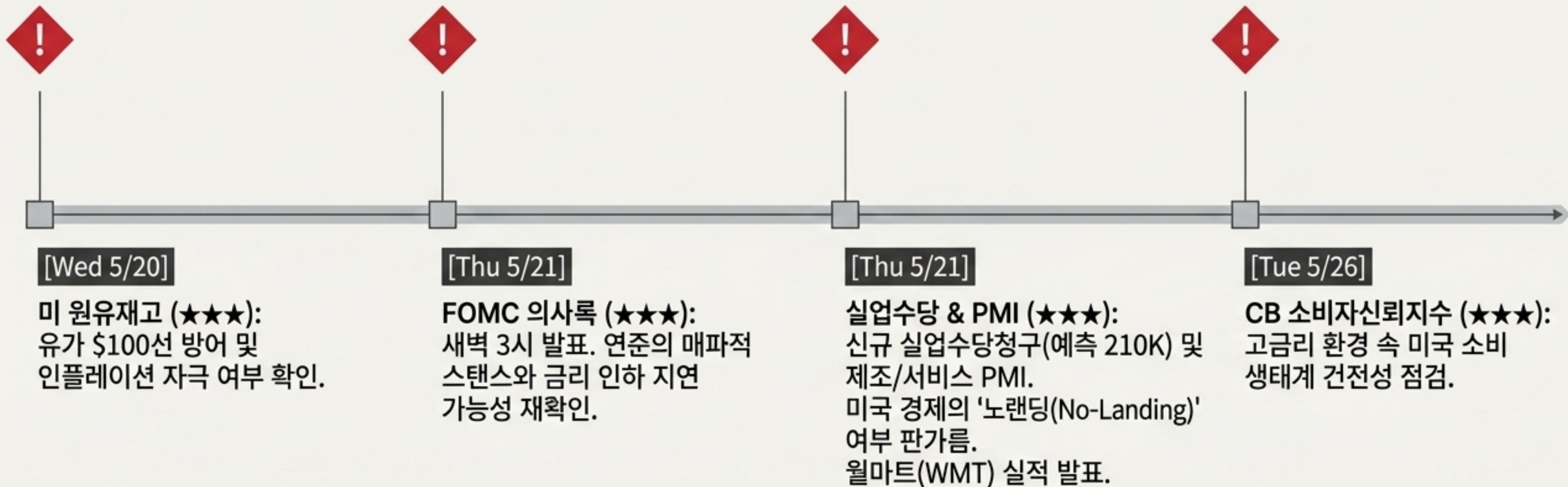
운수장비:
1D -4.25%
(1W -4.04%)

은행:
1D -3.97%
(1W -4.68%)

전기가스업: 1D -5.13% (1W -8.10%)
- 에너지 원가 상승 압박

상대적 선방: 음식료품(-1.15%), 보험(-0.98%) 등 일부 경기 방어 필수소비재는 하락폭 제한.

리스크 레이다: 주간 핵심 매크로 일정 (5/20 ~ 5/26)



목요일 새벽 FOMC 의사록 공개가 이번 주 글로벌 유동성 방향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.

종합 및 액션 플랜: 단기 방어적 플레이북



리스크 관리 (Risk Management)

- KOSPI 7,000선 하향 이탈 대비. 외국인의 3조 원대 순매도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단기 추가 하락 리스크 상존.
- 레버리지 축소 및 보수적 시장 접근 필수.



자산 배분 (Asset Allocation)

- 방어주 및 현금 비중 확대. 고금리에 취약한 성장주(2차전지 등) 비중을 줄이고 현금 유동성 확보.
- 은행/유틸리티 섹터는 바닥 확인 전까지 신규 진입 자제.



헤지 전략 (Hedging Strategy)

- 안전자산(금) 및 원화(KRW) 포지션 활용. 미국 금리 변동성에 대항하기 위해 상승 추세의 금(\$4,985)과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원화(1,445원) 자산을 포트폴리오 안전판으로 활용.

생존이 수익을 압도하는 장세.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리스크 오프(Risk-Off) 스탠스 유지.